

“퍼즐 맞추듯 부산서 찾은 70년 전 엄마의 흔적 참전용사의 딸이라 영광”

스웨덴아전병원 근무 故 뷔비 블롬베리 씨 딸의 사모곡



피아 블롬베리

2017년 3월 어느 오후, 큰 아들 비요르에게서 전화가 왔다. “어머니, 이번 가을에 한국에 가시겠어요?”라고 물어왔고 나는 한치의 머뭇거리지 않고 “물론이지”라고 답했다. 마침내 나는 그렇게 한국을 갈 수 있었다. 나는 아주 오래전부터 한국 방문을 고대해왔다. 그것은 아주 특별한 한 사람, 바로 돌아가신 나의 엄마 때문이었다.

한국전쟁 그리고 엄마의 삶

엄마(뷔비 블롬베리)는 젊었을 때 간호사이자 자원봉사자로 한국전쟁에 참전했다. 엄마는 1953년 11월 15일 부산에 도착했는데 그 날은 엄마의 서른살 생일이었다. 엄마는 부산 스웨덴아전병원(정식 명칭 스웨덴적십자아전병원)에서 근무했다. 부서 관리자였는데 군대 계급으로 치면 중위급에 해당했다. 병원에는 아이들이 많았는데 대부분 야외에서 슈투탄이나 폭약을 가지고 놀다가 중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 받았다. 이들 중 일부는 안타깝게 고아가 되었다. 이 아이들을 치료하는 의사와 마취의사의 수술을 돕는 것도 엄마의 임무 중 하나였다. 병원 밖으로 나가 주민들에게 예방 주사를 놓거나 기생충을 없애는 일도 했다. 엄마를 포함한 의료진들은 자주 바다로 갔는데 그곳에서 마음의 평화와 활력을 다시 찾았다. 엄마는 1953년 크리스마스 이브날 일을 끝낼 때를 기다려 주었다. 엄마와 직원 한 명이 병원 보안구역 밖으로 나가 전나무 한그루를 찍어 와 손으로 만든 각종 장식물로 장식을 했는데 그 덕에 병원 내 모든 환자들이 크리스마스 기분을 느낄 수 있었다. 그날 밤, 여러 언어로 된 크리스마스 캐롤 ‘고요한 밤’이 병원에 울려 퍼졌고 엄마는 그날 밤의 추억을 결코 잊지 못했다. 한국 전통결혼식에 초대된 일화도 들려주셨는데 그 기억도 가슴 깊이 간직했다. 또 비번인 날이었는데, 낙하산을 등에 멘 채 레이다 감시망 아래에서 좌석도 없는 텅 빈 비행기를 타고 칠곡 같은 야간 비행을 감수했던 이야기도 들려주었다.

1954년 5월 4일 엄마는 고향인 스웨덴의 보덴으로 돌아왔고 그곳에서 아빠와 결혼을 했다. 엄마가 한국에 가려고 마음먹었을 무렵 미래의 남편인 아빠를 만났다. 아빠는 엄마에

게 결혼 프러포즈를 했고 엄마는 승낙했지만 아빠를 두고 한국으로 가야만 했다. 나는 1955년 1월에 태어났다. 슬프게도 아빠는 내가 태어나고 3개월 뒤에 병으로 돌아가셨다. 엄마는 65세 은퇴할 때까지 병원의 응급 및 수술 부서의 관리자로 근무했고 일본과 한국으로 한 달 간의 여행을 다녀왔다. 엄마는 스톡홀름의 한국대사관 행사에 수차례 참석했고 대사관은 엄마의 생일을 늘 챙겼다. 엄마의 장례식에 전 국무장관 내외가 참석하기도 했다.

한국에서의 추억은 엄마의 일생에 대단히 많은 영향을 주었다. 심지어 삶에 대한 가치관과 나의 양육 방식에도 영향을 끼쳤다. 엄마가 들려준 이야기와 기억들은 나로 하여금 한국의 흥미로운 문화와 역사, 종교, 음식, 예술 그리고 아시아에 관심을 가지게 만들었다.

엄마는 2014년 2월 13일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91세 일기로 돌아가셨다. 숨을 거둘 때까지 엄마의 정신이 아주 맑았다. 나는 두 팔로 엄마를 꼭 껴안았다. 우리 가족은 엄마의 영혼이 자유로울 수 있도록 창문을 열었다. 그리고 장례식 전날 나는 엄마의 관을 색칠했다. 관 주위로 내 손자국을 찍고 엄마의 고향 마을에서 가져온 꽃도 수놓았다. 나는 엄마가 돌아가시고 나서 엄마의 유품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엄마가 한국을 얼마나 깊이 사랑했는가를 더 깊이 알게 되었다.

엄마의 흔적을 찾아 부산으로

통화를 끊고 비요르는 항공편과 호텔 예약을 모두 끝냈다. 3월 바깥은 여전히 땅에 눈이 쌓여 있어 가을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은 마치 100만년이나 멀게 느껴졌다. 2017년 당시 한국의 정치 상황은 매우 불안정하고 격렬했다. 친구 몇몇은 나에게 한국 방문을 하지 말 것을 조언하기도 했다. 하지만 나는 조금도 두렵지 않았다. 칠곡 같은 밤에 낙하산을 메고 총에 맞을 것을 각오로 비행기에 올랐던 엄마와 동료들의 전쟁 당시 상황에 비할 바가 아니었기 때문이었다.

도무지 올 것 같지 않던 한국으로 떠나는 10월 26일이 마침내 왔다. 마음이 설레 뜬 눈으로 밤을 새웠다. 마지막으로 여행 서류와 가방을 차례대로 체크했다. 남편의 배웅을 받으며 아들 비요르와 11살 손자 빌메르와 함께 비행기에 올랐고 베이징을 경유해 드디어 한국에 도착했다. 길고 지루했던 비행과 환승 과정에서 수화물이 뒤늦게 실리는 등의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한국에 왔다는 사실만으로 우리는 행복했다.

서울에서 이들을 보내며 판문점과 정전기념관을 방문했다. 다음날 우리는 서울역에서 고



1 어린이 환자들과 정겨운 시간을 갖고 있는 뷔비 블롬베리 간호사와 동료들. 2 한국인 간호사들과의 기념 촬영. 3 스웨덴아전병원 운동장에서 동료들과 휴식을 취하는 블롬베리 간호사. 4 2018년 대한민국 국가보훈처는 블롬베리 간호사에게 사후에 ‘평화의 사도’ 메달을 수여했다. 사진은 평화의 사도 메달(왼쪽)과 젊었을 때 모습.



속역차를 이용해 부산으로 향했다. 험기증을 잘 느껴 열차 여행이 걱정됐지만 상관없었다. 우리 셋은 환상적인 여행을 하고 있다는 듯 모두 동의했다.

부산, 수도 없이 꿈꾸고 상상만 해 온 바로 그 곳. 엄마가 젊은 간호사로 왔던 그때와 지금은 어떻게 달라졌을까. 엄마의 사진에서 봤던 그 사람들이 혹시 아직 살아 있지 않을까. 만일 엄마가 치료했던 그 사람들을 만나게 된다면 하고 싶은 질문이 너무나도 많다. 엄마가 근무했던 그 병원이 지금도 존재하고 있을까. 엄마가 걸었던 그 복도를 내가 걷고 엄마가 봤던 것들을 내가 볼 수 있기를 희망한다.

나와 엄마는 대단히 친밀했다. 엄마는 한국에서 돌아와 곧바로 아빠와 결혼을 했다. 슬프게도 아빠는 매우 아팠고 내가 겨우 3개월 아기를 때 세상을 떠나셨다. 내 곁에는 언제나 엄마뿐이었다.

엄마는 대단히 특별한 분이셨다. 매우 울고고 정직했으며 다른 이들에게 관대하고 친절하고 공경했다. 삶에 있어 긍정적이었고 인생을 열심히 살았으며 어떤 상황에도 좌절하지 않는 용감한 여성이었다. 엄마는 내게 최고의 유년 시절을 선물했다. 모든 시간을 엄마와 함께 했고 지금도 그것에 감사한다. 그런 엄마의 삶을 만들어준 나라를 내가 찾아온 것이다.

호텔에 짐을 풀고 유엔기념공원을 찾았다. 잔디와 꽃이 가득한 13만5000㎡의 아름다운 공간은 우리로 하여금 이곳에 잠든 이들을 기억하고 존경하게 만들기에 충분했다. 이들은 영웅이고 이들을 존경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이다.

참전용사의 딸이라는 영광

이어서 언덕 위 유엔평화기념관을 방문했다. 때마침 스웨덴으로부터 기증받은 사진으로 전시회(전선의 의사들이)가 열리고 있었다. 엄마가 일했던 그 병원 사진도 몇 장 보았다.

비요르가 기념관 직원들과 잠시 대화를 하던 중 내가 한국전쟁 당시를 기록한 멋진 앨범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자 그들은 그 사진들을 기념관에 기부할 수 있는지를 물어왔다.

서면·남구서 200만명 치료... 한·스웨덴 우호의 상징

■ 스웨덴적십자아전병원

스웨덴이 6.25전쟁 때 겪었던 대규모 의료 지원단으로 1950년 9월 23일~1957년 3월까지 부산에 체류하며 유엔군·포로·민간인 등 200만명(결핵 예방접종 포함)을 무상 치료했다. 당시 ‘서면병원’으로 불리었다. 초기 부산상고(현 롯데백화점 서면점)에 주둔하다 1955년 5월부터 남구 수산대학교(현 부경대학교)로 옮겨 와 민간인 치료에 전념했다. 의료진은 순수 민간인 자원봉사자로만 구성되었고 6개월 근무가 원칙이었다. 의료진의



현신적인 봉사활동은 1959년 3월 11일 한국-스웨덴 수교로 이어졌고 지금까지 양국 우호의 상징이 되고 있다.

하지만 그 앨범은 엄마가 나에게 남긴 전부이기 때문에 그럴 수는 없다고 답했다. 그들은 내 뜻을 이해했고 곧이어 진열장에서 가방 하나를 꺼내 한국을 도와준 엄마를 대신에 나에게 선물을 하고 싶다는 것이 아닌가. 당황스럽고 이해가 되지 않아 나에게 이런 호의를 베푸는 이유를 물었다. 직원들은 엄마는 한국전 참전용사이며 내가 명예롭게 선물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설명했다. 나는 “엄마는 간호사이자 군인이 아니었으며 전쟁 때 사망하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들은 전쟁에 참가한 모든 이들이 참전용사이며 나에게 “참전용사의 딸”이라고 했다. 아, 엄마가 이 말을 들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또 내가 느낀 이 영광스러운 감정을 엄마도 느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비요르가 사태를 수습하기 전까지 나는 감격에 겨워 흐르는 눈물을 주체할 수 없었다.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 아침, 나는 혼자서 스웨덴아전병원이 있던 현장(롯데백화점 서면점 인근)을 방문하기로 했다. 그곳을 방문하기 위해 한글 쪽지도 준비했다. 그 장소에서 어떤 느낌을 받을지 상상하러 애썼다. 택시를 타고 고속도로처럼 보이는 어느 교차로에서 내렸다. 길을 잃은 것 같았다. 여러 곳을 헤매다 백화점 직원의 친절할 안내를 받고서야 비로소 스웨덴참전기념비를 찾았을 수 있었다.

스웨덴아전병원은 미국을 제외한 최초의 의료지원단이었다. 휴전협정 이후에도 1957년까지 부산에 남아 민간인을 상대로 의료 활동을 펼쳤고 한국 철수 이후에도 서울에 스칸디나비아 훈련 병원을 개원해 한국 의료진을 양성하는데 앞장섰다. 그런데 스웨덴참전기념비가 이렇게 꼭꼭 숨어있다는 사실에 허탈감을 느꼈다. 나는 좀 더 다른 것을 상상했었는데 현실은 슬프고 혼란스러웠다.

부산타워를 둘러본 뒤 자갈치시장에서 아들과 손자를 다시 만났다. 나는 해산물을 좋아해 부산에 살았다면 자갈치시장의 단골이 되었을 것이다. 늦게 호텔에 돌아와 샤워를 하고 집에 돌아와 뉘우었다. 내일이면 베이징 경유를 포함해 스웨덴 집까지 72시간 걸리는 먼 일정을 소화해야 한다. 이번 여행은 대단히 성공적이었고 기대 이상이었다 하지만 나의 한국여행은 끝이 아니라 이제부터가 시작이다. 스웨덴 현지 연락·번역 도움=캠벨 에이시아 가족

스웨덴 참전용사 故 뷔비 블롬베리(Wivi A. Blomberg) 간호사의 외동딸인 피아 블롬베리(Pia Blomberg) 씨는 2017년 10월 첫 한국 방문 이후 매년 한국을 찾고 있습니다. 올해도 5월 방한을 계획했지만 코로나19 사태로 일정이 연기되었습니다. 한편 뷔비 블롬베리 간호사는 2018년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평화의 사도 메달’을 사후에 수여받았다.

2020년 개별공시지가 결정지가 열람 및 이의신청 안내

2020. 1. 1.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지기를 열람하시고 가격에 이의가 있으신 토지소유자 등은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결정지가 공시일 : 2020. 5. 29.
- 열람 - 방법 : 남구청 토지관리과(☎607-4752~4755), 남구청 홈페이지 일사관리 부산 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 - 내용 : 토지 지번별 제곱미터(㎡)당 가격
- 이의신청 - 기간 : 2020. 5. 29. ~ 6. 29. - 제출자 : 토지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 - 제출방법 : 방문, 팩스, 온라인(일사관리 부동산통합민원)



신혼부부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안내

2019. 1. 1.부터 신혼부부가 생애최초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그 주택에 대한 취득세를 경감하는 제도가 시행됨으로써, 많은 신혼부부가 취득세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여 「코로나19」 극복 및 저출산 대책에 기여 하고자 합니다.

- 1 신혼부부 생애최초 주택취득에 대한 감면요건
 - 신혼부부 : 혼인한 날로부터 5년 이내 또는 주택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 혼인예정인 사람
 - 생애최초 : 신혼부부 모두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을 것
 - 소득기준 : 부부합산소득 7천만원 이하(홀벌이가구 5천만원)
 - 주택기준 : 전용면적 60㎡(18평) 이하, 취득가액 3억원 이하
- 2 취득세 감면 적용
 - 감면 혜택 : 취득세 및 지방교육세 50% (예시 : 주택가액 3억원인 경우, 1,650,000원 감면 혜택)
 - 감면 기간 : 2019. 1. 1.~2020. 12. 31.
- 3 취득세 감면 서류 및 문의처
 - 제출서류 : 감면신청서, 소득금액증명원,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 등본 등
 - 문 의 처 : 남구청 세무1과(☎607-4191~6)

6월은 자동차세 납부의 달입니다

시민들께서 납부하시는 자동차세는 사회기반시설을 조성하고 시민 복지를 위하여 쓰여지는 소중한 재원입니다.



- 납세의무자 : 2020. 6. 1. 현재 자동차 소유자
- 납부기간 : 2020. 6. 16. ~ 6. 30.
- 납부방법 : 금융기관, 인터넷, 납부전용(가상)계좌 이체, ARS 등
 - 인터넷 납부 : http://etax.busan.go.kr(부산사이버지방세청) - 납부시간 : 00 : 30 ~ 23 : 30(365일 연중무휴)
 - 계좌이체 : 시중은행, 우체국, 새마을금고 등 금융기관
 - 신용카드 : 롯데, 삼성, 신한, 현대, BC, 국민, 우리, 농협, 시티, 하나카드
 - 전국은행 ATM기, 구.군청 내 무인납부기 이용 납부
 - 납부전용(가상)계좌 이체 : 고지서에 기재된 납부계좌로 계좌이체 납부
 - ARS(☎1544-1414), 스마트폰 앱(스마트택스)을 통한 납부